랩업 리포트 기획 초안 A

1. 시작 배경

파주시 관광 흐름을 이해하고 싶어 DACON DL Competition 자료들을 바탕으로 리포트 초안을 준비하려 한다. 아직 착수 단계라 전체 목표와 방향을 먼저 정리해두고, 이후 실제 분석에 들어갈 때 참고하는 용도로 쓰고자 한다. 리포트의 키워드는 ‘지역 방문 수요를 미리 파악해 의사결정을 돕는다’로 잡았다. 수업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잊지 않기 위해, 어떤 요소를 살려야 하는지 계획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 문서를 완성하면 향후 보고서 작성 시 중구난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2. 데이터 파악 계획

현재 폴더에 있는 `월별\_관광지\_방문객추세\_LG유플러스.csv`, `월별\_생활인구\_LG유플러스.csv`, `월별\_관광지\_소비지표\_삼성카드.csv`는 월 단위 지표를, `설문\_국내여행\_TOP10\_트랜드\_데이터\_결과.csv`는 인식 조사를 담고 있다. 우선 각 파일의 기간과 주요 컬럼을 정리한 표를 만들고, 중복 여부나 빠진 달이 없는지 확인하려 한다. 이때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기보다 어떤 배경으로 수집됐는지 간략한 설명을 곁들이면 나중에 데이터를 소개할 때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초기에는 요약표와 간단한 메모로 시작하지만, 필요하면 시각 자료로 확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려 한다. 폴더 구조도 함께 기록해두면 나중에 자료를 공유할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전처리 방향

모든 파일의 날짜 표시가 제각각이라 `target\_month`라는 기준 열로 통일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다. 결측치는 단순 대체보다는 왜 빈 값이 생겼는지 메모하면서,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달의 수치를 참고하는 정도로 처리해볼 예정이다. 설문 결과처럼 숫자 범위가 다른 자료는 0~1 사이로 맞춰두면 나중에 비교가 쉬울 것 같아 그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나치게 복잡한 수식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기준을 채택해, 리포트 독자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전처리 과정은 단계별로 캡처하거나 노트로 남겨 재현 가능성을 확보한다.

4. 분석과 활용 구상

초기 분석에서는 방문객 추세와 생활인구, 소비 지표의 흐름을 동시에 그려보며 계절 패턴이 있는지 찾는다. 이후 간단한 시계열 예측을 적용해 다음 분기의 방문자 수를 추정하고, 검색량이나 설문 결과가 어떤 힌트를 주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결과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 그래프와 짧은 해석으로 정리하려 한다. 복잡한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왜 이 수치가 중요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좀 더 공을 들일 생각이다. 필요하면 간단한 시나리오 분석을 덧붙여, 정책 담당자가 다양한 상황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5. 일정과 체크포인트

1주차에는 데이터 구조 파악과 전처리 가이드 정리를 끝내고, 2주차에는 기초 분석과 그래프 시안을 만든다. 3주차에는 예측 실험을 돌려보고, 4주차에는 리포트 초안을 다듬어 피드백을 받는다. 마지막 주에는 수정본을 확정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템플릿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둘 예정이다. 각 주마다 작은 목표를 세워 성과를 기록하면, 학습 과정에서 느낀 점을 자연스럽게 쌓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일정이 지체될 가능성을 대비해 예비 일정도 별도로 마련해 둔다.

6. 기대효과

이번 기획안을 바탕으로 실제 분석에 들어가면 파주시 관광 수요를 보다 선제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축제 일정이나 날씨 같은 외부 변수를 추가해 모형을 확장하고, 정책 담당자가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른 지역 사례에도 응용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 싶다. 학습 과정을 문서화하는 습관도 함께 자리 잡으면 좋겠다.

7. 참고 메모

자료를 다루는 동안 느낀 점이나 추가 아이디어는 메모 앱과 노트북을 병행해 기록한다. 회의 시 공유할 요약본은 문서 끝에 별도 부록 형태로 붙일 예정이며, 필요 시 음성 메모도 활용할 생각이다. 데이터 출처와 업데이트 주기를 명확히 해두면, 이후 갱신 작업도 수월해질 것이라 본다.

맺음말

아직 배운 내용을 다 활용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계획을 정리해두면 진행 과정이 훨씬 수월할 것 같다. 작성 과정에서 떠오른 질문은 따로 정리해 두고, 추후에 실제 결과를 얻으면 이번 초안을 토대로 회고를 작성할 예정이다. 계획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보다 완성도 높은 Wrap-up 리포트를 목표로 삼는다.